



## “2007년 제16차 총회 인사말”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 본고는 지난 2월 27~28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및 임원 여러분!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 오리협회 2007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도 우리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농·축산업은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오리업의 경우 작년 11월에 AI가 발생한 이후 오리 살처분과 이에 따른 오리고기 소비감소로 우리 오리업계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AI에 대한 걱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작년 2월

초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의 새로운 도전과 격랑 속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다시 한 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국내 오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오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종오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구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여러분에게 오리경영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격월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였던 ‘오리마을’ 지를 매월 발간하여, 회원여러분은 물론 농림부, 시, 도청, 군청 등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우리 오리업계의 위상을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해 11월 22일에 AI가 발생됨에 따라, 발생상황과 예방법 방역활동 방법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오리 살처분 등 오리 사육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림부를 비롯한 수의과학 검역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AI 바이러스 및 각종 질병검사를 위한 종오리 혈액검사를 종란으로 대신 검사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건의하여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육하는 오리의 품종은 영국산 SM3과 프랑스산 Star53이 있는데, 이 오리들의 생산성과 번식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 검정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각각 종오리 300마리를 확보하여, 비교 시험 사육코자 축산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오리업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글로벌 시대의 개방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고 재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07년도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 **종오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오리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며, 수입대상국도 영국과 프랑스에만 의존하게 되어 종오리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종오리(GPS)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종오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오리고기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알지 못하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만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모두다 아시다시피, 오리업계에도 자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오리 자조금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국내 오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리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오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가 부족한 현실로 새로운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연구소와 공동으로 종오리 사양 시험을 비롯한 연구 개발사업 실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 회원 지도·지원 사업 및 조사연구, 홍보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농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오리 산업이 더욱 발전되고, 협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회원의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워크숍이 화합과 단결의 밑거름이 되어 오리업계가 보다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분파는 조직의 최대 적입니다. 단결하는 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생의 길을 갈 때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남은 임기 2년을 오리 산업 및 협회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및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